

政教충돌 직전 ‘스님의 한 수’

자승 원장 “한상균 거취
오늘 정오까지 해결”

조계사 진입했던 경찰
영장집행 일단 연기

민노총 긴급 대책회의
‘韓 순교자 만들기’ 차질

경찰이 9일 오후 서울 조계사 경내(境內)에 들어가 이곳에서 24일째 은신 중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구속 영장 집행을 나섰다가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이 “내일(10일) 정오까지 한 위원장 거취 문제를 해결할 테니 경찰과 민노총은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조계종을 지켜봐 달라”고 제언하자 일단 물러섰다.

자승 총무원장은 이날 오후 5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계종은 그간 상생과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한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승 총무원장은 그러면서 “더 이상의 갈등은 (조계종) 종단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이에 경찰은 긴급 수뇌부 회의를 갖고 “일단 체포영장 집행을 연기하겠다”며 한 위원장 체포에 투입된 경찰 병력을 조계사 밖으로 물렸다.



조계종 총무원 제공
경찰이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나선 지 2시간쯤 지난 9일 오후 5시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자승 총무원장은 “내일(10일) 정오까지 한 위원장 거취 문제를 해결할 테니 경찰과 민노총은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조계종을 지켜봐 달라”고 했다.

한 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이제 사실상 조계종이 떠맡게 됐다. 조계종 측은 한 위원장을 설득해 경찰에 자진 출두시킨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위원장이 반발할 경우 경찰이 10일 다시 강제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위원장은 스스로 조계사를 나갈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경찰 1000여명은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조계사를 에워싸고 ‘한상균 체포작전’에

들어갔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8일 오후 “한 위원장이 9일 오후 4시까지 경찰에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할 것”이라고 한 데 따른 조치다. 조계종 직원 200여명이 한 위원장이 숨어 있는 조계사 도심포교 100주년 기념관 부근에 진을 치면서 경찰과 충돌이 빚어졌다.

그러나 경찰이 조계종 관계자들을 한 명씩 끌어내면서 오후 5시쯤엔 기념관 건물로 들어가는 길이 뚫렸다. ‘조계종이 10

일 정오까지 한 위원장 거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승 총무원장의 기자회견은 경찰이 기념관으로 들어가는 길을 확보해 진입을 시도하기 직전에 나왔다.

자승 총무원장의 기자회견 직후 민노총도 ‘한 위원장 거취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민노총은 이날 밤 9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했다. 민노총은 전날 경찰이 한 위원장에 대한 영장 강제 집행 방침을 밝히자 수도권

조합원들에게 ‘9일 조계사로 모이라’고 동원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날 조계사 부근에 모인 민노총 조합원은 많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민노총 측은 한 위원장이 조계사에서 강제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순교자’ 내지는 ‘희생자’ 이미지를 연출하려 한 것 같다”며 “민노총이 그런 그림에도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충령·김정환 기자 기사 A2·3면

野 마비 상태

이종걸도 “최고위 불참하겠다”
수도권 의원 ‘文·安 중재’ 시도

당 내분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가 9일부터 마비 상태가 됐다.

당 서열 2위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전직 원내대표들과의 회동 뒤 “오늘부터 최고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주승용·오영식 최고위원이 사퇴했고, 회의 참여 멤버인 최재천 정책위의장, 정성호 민생본부장도 불참 방침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능이 많이 저하된 최고위에 나가서 기능과 효율을 보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이날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이 원내대표가 불참한 최고위 회의에서 “당 공식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정신이자 민주주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은 수습 방안 마련에 나섰다. 수도권 의원들은 문 대표가 먼저 사퇴한 뒤 안철수 의원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일단 문 대표가 물러난다는 점에서 안 의원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 측은 “구체적 방안을 들여보겠다”며 수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안 의원 측은 “문 대표가 제의했던 ‘문(재인)·안(철수)·박(원순) 연대’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며 일단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정우상 기자 기사 A5면

자신들이 하면 ‘不法도 善’이라는 민노총

‘민노총 20년’ 진단 〈中〉

최근 3년 불법파업의 67% 주도
“정부는 惡” 서슴없이 法 무시

“지금 필요한 것은 평화집회가 아니라 잔인무도한 국가 폭력에 대한 격렬한 저항과 투쟁이다. 독재정권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언제나 자본과 정권에 불법이고 폭력시위였다. 민중 항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40~50년 전 개발독재 시대의 투쟁사를 연상케 하는 이 글은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시위를 앞두고 민노총 내부 강경파인 ‘노동전선’이 발표한 성명에 든 내용이다. 민노총 지도부가 조계종 화쟁위원회를 통해 평화집회 방침을 밝히자 이를 철화하고 폭력시위에 나서라고 부추긴 것이다. 노동 전문가 A씨는 “노동전선은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소속된 정파”라며 “(한 위원장에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려는 공권력을 오히려 ‘국가 폭력’으로 매도하는 조직이 바로 민노총”이라고 말했다.

◇법치주의 부정하는 민노총

폭력으로 일룩진 민노총의 20년 역사〈본지 12월 9일자 A1·A4면 보도〉는 “법치주의를 사실상 부정하며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불법·위법 행위까지도 용인된다는 민노총의 위험한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노동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노동자를 ‘착취’ 하는 기업이라는 ‘적’을 상대로 벌이는 자신들의 투쟁은 ‘절대 선(善)’이기 때문에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서슴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2015년 10월) 일어난 불법 폭

력시위 102건 가운데 84%는 민노총이 주최했거나 참석했다. 같은 기간 벌어진 불법 파업 12건 가운데 8건(67%)은 전국 임금 근로자(1931만명)의 3%(63만여명)에 불과한 민노총 사업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세 건의 불법 파업이 모두 민노총 사업장이었다.

고용노동부와 유일 교섭단체 조항 등 현행 법상 불법·위법으로 규정된 내용을 단체협약에 집어넣는 데도 민노총이 앞장서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2769개 사업장을 상대로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민노총은 조사 대상 759곳 가운데 356곳(46.9%)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노총은 40.8%(1611곳 중 658곳), 양대 노총에 미가입한 사업장은 38.1%(399곳 중 152곳)였다.

A4면에 계속 박은호·배준용 기자

경제활성화法 처리 못하고 끝난 ‘최악 정기국회’

법안 가결률 35.5%… 역대 최저
與 30일간 임시국회 단독 소집
野 불참 ‘개점휴업’으로 갈 듯

八面鋒

與野, 또 주요 법안 처리 못 하고 정기국회 끝내. 무엇을 기대하는 항상 그 이하를 보여주는 일관성.

○ 조계종 총무원장의 막판 중재로 경찰의 한상균 영장 집행 연기. 불교계 어른의 지혜를 믿어봅니다.

○ 마크리 아르헨티나 정권의 장관 25명 중 9명이 기업 출신. 좌파의 썬패를 확 뜯고치겠다는 얘기.

여야(與野)는 9일 100일 동안 진행돼온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사실상 ‘민손’으로 끝냈다. 이날까지 여야가 합의 처리기로 했던 경제 활성화, 경제 민주화 법안 4건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의 통과도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10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15일·22일·29일 세 번에 걸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이 국회 불참을 예고한 상태여서 당분간 ‘개점휴업’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 지도부를 불러 “법안 논의에 조속히 착수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새정치민주연합의 원종회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하명(下命)’한 법률안들을 날치기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에 결코 동조할 수 없다”고 했다. 정 의장은 오후 본회의 도중에 정회를 하고 양당 원내대표를 다시 불렀지

만 중재에 실패했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정 의장이 ‘15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여야에 요구했으나 야당이 거부해 무산됐다”고 전했다. 본회의가 끝나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19대 국회는 마지막 정기국회를 끝낸 상황에서 최악의 ‘식물 국회’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까지 총 1만7309건의 법률안을 발의해 이 중 6158건(가결률 35.5%) 처리에 그쳤다. 1만3913건을 발의해 6178건을 처리한 18대 국회(가결률 44.4%)를 비롯해 가결률이 50~80%였던 14~17대 국회보다 실적이 크게 떨어졌다.

선정민 기자 기사 A5·6면

발행면수 A36·B12·C8·D8

OYSTER PERPETUAL
DAY-DATE 36

ROLEX

로렉스 공식 판매점
서울 • 신세계백화점 영문동점 1F(키아로스) 02-2639-1560 • 롯데백화점 잠실점 1F(나우웨이) 02-2143-1700~2 • 롯데백화점 본점 데이비뉴텔 2F(로노다임) 02-2118-9063
• 신세계백화점 본점 본관 B1F(그리나지) 02-310-5388 • 현대백화점 합구점본점 2F(우노오치) 02-545-4855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2F(현대시계) 02-557-8185
부산 •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서면) 5F(솔브시계) 051-808-6500 •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1F(엘보사) 051-745-2348~7
대구 • 롯데백화점 대구점 1F 053-660-3118 광주 • 광주신세계백화점 2F(세종21) 062-360-1340 대전 • 갤러리아 디폴드점 1F(동화시계) 042-720-6115
로렉스 공식 서비스센터 서울 로렉스스프라이, 역삼점 GFC빌딩 4F, 02-777-0931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1F, 051-745-1277 각 공식 판매점